



◀17일 오후 무등산 관광기념품 판매장을 찾은 여성 손님이 기념품을 고르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기념품을 한 곳에 모은 판매장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광주U대회 기간에 외국인을 위한 기념품 임시 판매장을 운영했으며, 당시 외국인과 외국인들의 반응을 감안해 그동안 상설 매장 개설을 적극 추진해왔다. 광주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판매장인 '무등산 관광기념품 판매장'은 동구 의재로에 위치한 광주시전통문화관 내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최근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KTX

‘무등산 관광기념품 판매장’ 동구 의재로에 정식 개장 명장 공예품 3천~1만5천원...주말엔 도로변 개미장터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으로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애환 광주의 기념품을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판매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판매장에서는 부채, 칠기 명함집, 고싸움 거울 등 생활공예품에서 전통공예품에 이르는 광주지역 무형문화재 기능장과 공예명장의 작품으로 3000원부터 1만5000

원대의 500여종 2000점을 전시 판매한다. 이와 함께 춘설빵과 춘설차 등 지역 특산품도 판매한다. 또한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전통문화관 안쪽 마당과 도로변에 개미장터(플리마켓)를 열어 불거리, 살거리, 줄길거리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2015광주세계U

대회 기간에 선수단 등에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장을 임시 개장하고, 지난 10일까지 입간판과 가로등 배너 등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손님맞이 준비를 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에 기념품 판매장을 개장해 애환 광주와 우수 공예품 홍보는 물론, 지역 공예인의 판로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국 관광객과 타 지역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많은 공예품을 확보, 전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추석·가을 행락철 맞아 광주 약수터 10곳 점검

광주시는 추석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을 합동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관리 주체와 수질검사 기관이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3일간 약수터 총 10곳(동구 3, 남구 1, 북구 4, 광산구 2)의 수질 안전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광주지역 약수터 10곳 중 무등산 국립공원 인근 7곳을 집중 점검해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수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현중 생태수질과장은 “약수터 중 지표수의 수질 부적합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등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등 수질 관리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누는 한가위

광주시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최근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인 '성심의 집'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근로자 내년 시급 7839원

최저임금의 130%

간접고용자 적용 검토

광주시 내년 생활임금제 시급이 7839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8월 27일과 9월 2일 두 차례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문상필)를 열고 2015년과 동일한 산정 기준인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결정·심의하고, ‘광주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장이 최종 결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인건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839원은 2015년 생활임금 7254원보다 8.1%(585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보다 1809원(30%)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63만8350원이다. 이는 연차수당과 시간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2016년 적용 예상 인원은 386명이다. 앞으로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시로부터 사무 위탁 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관계 기관과 협의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U대회 체조 경기장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2015광주세계U대회 체조 경기장으로 사용된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사진)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2007년 처음 제정돼 올해 9회째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공공건축사업 중 발주 기관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노력과 성과를 통해 도시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

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체육관(사진)이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해 정부로부터 공공건축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건축·도시문화 수준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광주여대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만7885㎡에 관람석 8337석을 갖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18 기록관 발전 방안 모색 오늘 시민토론회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8일 오후 4시 기록관 7층 다목적실에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13일 개관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대외 활동방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참여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2개 주제로 나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홍보영상을 시작으로 박해광 전남대·5·18연구소장 사회로 소설가 문순

태서와 강정재 전 전남대 총장 기조발제, 최재희 이화여대 교수의 ‘기록물 관리의 세계적 추세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 장우권 전남대 교수와 윤은하 전북대 교수의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김익한 명지대 교수가 ‘5·18기록관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토론에는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오미란 전 여성재단 사무총장,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황정아 전 광주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참여한다. /채희종기자 chae@

문화복합시설 · 펜션 · 식당 · 전원주택단지 최고 장소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
-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

주인직매 H.010-3605-5000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2441평 건882평 임6726평
- 낙찰 - 14억 9500만원(7명 응찰/2등 - 14억 9100만원)
등기비 - 7000만원
명도비 - 2000만원(5명)
기초공사 - 3000만원(옹벽공사/벌목 등)
기타 - 1500만원(대청소 등)
총 - 16억 3000만원
- 구매 - 17억 5000만원(조정 없음)
대출 - 12억 5000만원(2.1%, 월 219만원)
- 실제 인수금액 - 5억원
- 조건 - 9월 23일까지